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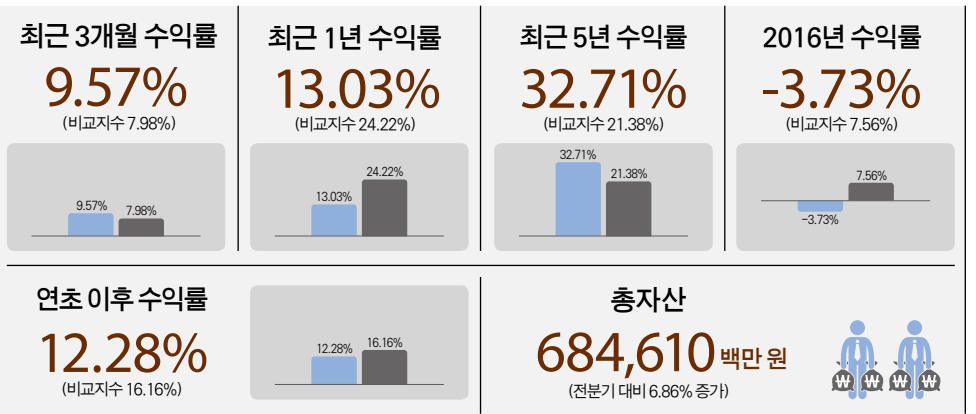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적 연금 상품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실천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내재 가치에만 주목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지향합니다(Low Risk Middle Return).

최초 설정일 | 2007.03.19 | 운용 기간 | 2017.03.19~2017.06.18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

1이 펀드는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18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8.85%로 산출되어 6단계 위험 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를 통한 실세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보통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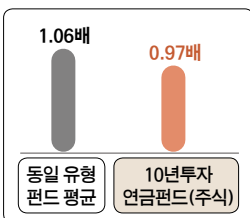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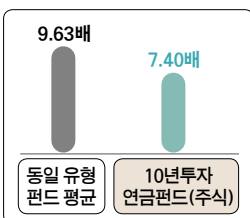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 = 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 = 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5~2017.04)
 ※ 동일 유형 펀드 액티브주식일반 공모펀드(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Vol.41
2017.03.19~
2017.06.18

가장 차갑게 빛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뜨겁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냉정을 지키고자 합니다. 뜨거운 시장에서 같이 뜨거워지기보다는 가장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 투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태양처럼 빛나고 싶어할 때 가장 차갑게 빛나는 10년투자 연금펀드가 되겠습니다.

장기 가치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시작하자!
10년 투자

김동영 자산운용2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주식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안정적 가치투자 지속할 것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1번째 자산운용보고서로 투자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 주도의 유동성 장세 지속

지난해부터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순매수세(2016년 11조 5,000억 원, 2017년 8조 원)로 KOSPI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2,370포인트대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 원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외국인 투자자 주도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증시는 2009년 3월 바닥을 친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S&P500은 256.9%, NASDAQ은 387.4%, DAX는 249.7%, NIKKEI는 181.3% 상승한 반면 KOSPI는 124.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폭이 작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높은 시장으로 인식된 것도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한 요인입니다.

주식시장 대세 상승 예견은 시기 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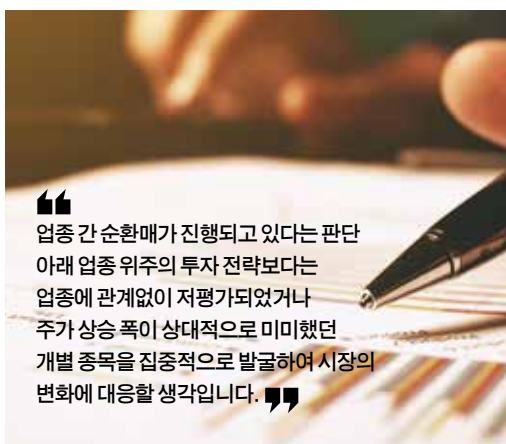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의 경우 2016년 초반 바닥을 찍은 후 저점 대비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및 기저 효과로 수출 관련 경제지표와 1분기 기업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 약화로 인한 수출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경기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예상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앞으로 KOSPI의 추가 상승 여부는 환율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의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올 하반기에 시작될 대차대조표 정상화(양적 긴축) 움직임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입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 등 부정적 요인 간과하지 말아야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ECB(유럽중앙은행)와 BOJ(일본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상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유럽과 일본마저 긴축 정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 창출 능력이 살아남에 따라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크게 상승한 자산 가격과 높은 밸류에이션, 오랜만에 맞이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긴축에 따른 파급 효과는 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투자연금펀드(주식)는 대세 상승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선 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업종 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업종 위주의 투자 전략보다는 업종에 관계없이 저평가되었거나 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
업종 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업종 위주의 투자 전략보다는 업종에 관계없이 저평가되었거나 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 원칙 지킬 것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지난 3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보다는 미약한 경기 회복과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한 경계 심리에 더 무게를 두고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장 대응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렸지만 더 높아진 자산 가격과 변화될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볼 때 ‘잃지 않는 투자’라는 저희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투자자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가치투자자로 알찬 장기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2본부장 김동영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자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주식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의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KDB생명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66508
클래스 C	AP736
클래스 S-P	AP737
클래스 C-E	BG327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3.18)	금분기 말(2017.06.18)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자산 총액	640,676	684,610	6.86
	부채 총액	8,093	5,340	-34.01
	순자산 총액	632,584	679,269	7.38
	기준 가격	980.60	1,074.40	9.57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C	기준 가격	938.12	1,024.08	9.16
클래스 S-P	기준 가격	929.73	1,016.37	9.32
클래스 C-E	기준 가격	1,000.00	1,092.89	9.29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좌수)×1000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17.03.19~ 2017.06.18	2016.12.19~ 2017.06.18	2016.09.19~ 2017.06.18	2016.06.19~ 2017.06.18	2015.06.19~ 2017.06.18	2014.06.19~ 2017.06.18	2012.06.19~ 2017.06.18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9.57	12.68	13.13	13.03	5.57	6.50	32.71
(비교지수 대비 성과)	(1.59)	(-2.47)	(-6.51)	(-11.19)	(-15.34)	(-10.92)	(11.33)
비교지수	7.98	15.15	19.64	24.22	20.91	17.42	21.38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C	9.16	11.85	11.87	11.34	2.40	1.72	26.28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8)	(-3.30)	(-7.77)	(-12.88)	(-18.51)	(-15.70)	(4.90)
비교지수	7.98	15.15	19.64	24.22	20.91	17.42	21.38
클래스 S-P	9.32	12.17	12.36	11.99	3.63	3.56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34)	(-2.98)	(-7.28)	(-12.23)	(-17.28)	(-13.86)	-
비교지수	7.98	15.15	19.64	24.22	20.91	17.42	-
클래스 C-E	9.29	12.11	12.44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31)	(-3.04)	(-7.20)	-	-	-	-
비교지수	7.98	15.15	19.64	-	-	-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200×90%)+[CD금리×10%])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저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수익률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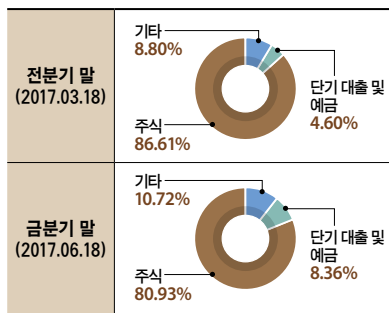
구분	주식	집합투자 증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19,497	-2,185	290	-8	17,593
금분기	59,582	300	-7	59,875	17,593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554,049 (80.93)	57,200 (8.36)	73,360 (10.72)	684,610 (100.00)

() 안의 숫자는 구성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1. 주식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SK	143,042	38,550	5.63	-
코리안리	2,834,121	34,576	5.05	2.35
롯데푸드	50,169	32,359	4.72	3.66
한국투자신탁	9,179,296	32,265	4.71	3.64
엔에스쇼핑	1,670,640	29,069	4.24	4.96
NAVER	27,012	24,095	3.51	-
SK네트웍스	3,424,780	24,008	3.50	1.38
메리츠화재	1,135,774	22,375	3.26	1.03
에이티젠	433,990	15,385	2.24	3.78
동아타이어	533,835	15,081	2.20	2.25
넥센	1,400,840	12,818	1.87	2.75
선진	558,429	11,280	1.64	3.43

2. 단기 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 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 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예금	한국증권금융(수탁)		31,071	0.92		-
콜론	대구은행	2017.06.16	26,129	1.21	2017.06.19	-

3. 기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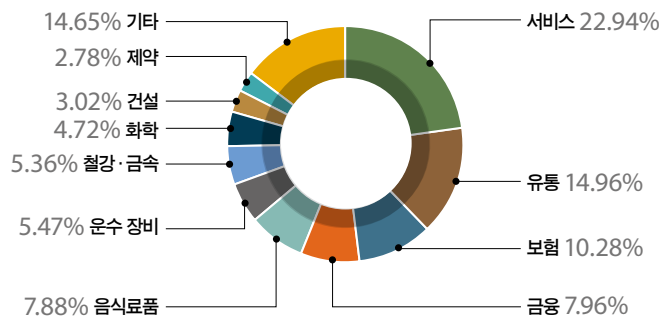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종류	금액	비고
기타 자산	66,007	9.64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비고 (보유주수÷총발행주수)×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 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유통업과 보험업 비중 늘고, 서비스업과 운수 장비업 비중은 하락

이번 분기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유통업과 보험업 비중은 늘고 서비스업과 운수 장비업 비중은 줄었습니다. 유통업은 5.44%에서 14.96%, 보험업은 8.22%에서 10.28%로 비중이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25.97%에서 22.94%로, 운수 장비업은 11.66%에서 5.47%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투자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에너지 유통 기업인 SK네트웍스, 메리츠화재,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한 바이오 기업 에이티젠, 동아타이어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및 비용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 (2017.03.18)		금분기 말 (2017.06.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자산운용회사	830.24	0.13	891.18	0.14	
	판매회사	클래스 C	1456.23	0.23	1,563.16	0.24
		클래스 S-P	1.61	0.09	1.71	0.09
		클래스 C-E	0.00	0.11	0.01	0.12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46.12	0.01	49.5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52	0.00	23.10	0.00	
	보수 합계	2355.73	0.58	2,528.68	0.59	
	기타 비용	5.46	0.00	5.51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128.30	0.02	169.88	0.03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26.44	0.04	380.50	0.06
		합계	354.75	0.06	550.39	0.08
	증권거래세	370.50	0.06	895.55	0.14	

* 비용 펀드의 순자산 총액(간편성) 대비 비율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전분기	0.00	0.23	0.23
	금분기	0.00	0.33	0.33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C	전분기	1.54	-	1.54
	금분기	1.54	-	1.54
클래스 S-P	전분기	0.94	-	0.94
	금분기	0.94	-	0.94
클래스 C-E	전분기	1.03	-	1.03
	금분기	1.05	-	1.05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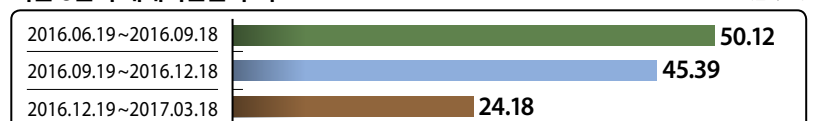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 기간	연 환산
15,726,470	236,668	4,347,989	298,535	53.94	213.98

* 매매회전을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 매매회전이 높을 경우 매매 거래 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 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을 53.94%로 직전 분기보다 높았

이번 분기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의 매매회전은 53.94%로 직전 분기 24.1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전 분기에 비해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주식 매도 금액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이번 분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주가가 많이 올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진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밸류 탐정의 펀드, 잘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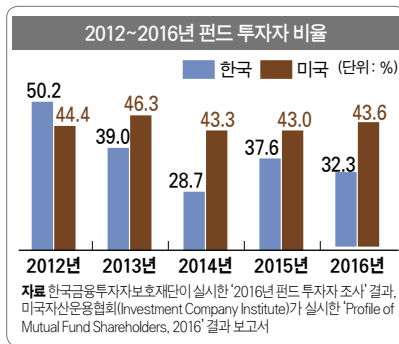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어떻게 다를까?

투자 목적과 기대수익률, 펀드 정보에 대한 관심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비교', '한국과 미국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공시 자료에 대한 의견'

1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비율 변화 추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응답자는 한국의 경우 32.3%, 미국의 경우 43.6%로 나타나 미국이 약 10%p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에는 펀드 투자 비율이 50%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가계의 약 45%가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펀드 가입 유형과 투자자 연령 차이

한국은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과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비율보다는 일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한 비율이 퇴직연금 이외의 개인적으로 투자한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펀드 투자자 연령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대체로 연령 구간별로 투자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펀드 투자자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반 펀드	96%	퇴직연금(DC형) 81%
특정 펀드	71%	퇴직연금 외 63%

3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1순위는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 모두 '은퇴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31%, 미국은 74%로 한국 투자자보다 미국 투자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주로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해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중요시하는 펀드 정보

한국 투자자는 펀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로 50.1%가 '해당 펀드의 성과(수익률)'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펀드 정보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성과(수익률)가 22.4%, 펀드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가 16.2%였습니다. 한국 펀드 투자자들은 운용보고서 내용 중 관심 있는 항목 역시 수익률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운용 경과와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은 12.9%,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은 9.5%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펀드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순위는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그림으로 표현된 연간 총수익률, 투자 목적 순이었습니다.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실시한 'Investor View o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roposed Summary Prospectus' 결과 보고서(2008)]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세요! 뉴스스크랩북

연금저축 적립할 때 세금 줄이는 3가지 노하우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연금저축 적립 시점에서 세금을 최소화 줄이는 틈새 아이디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 꿀팁 200선'

0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상품의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700만 원-연금저축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
400	300	700
200	500	700
0	700	700

02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리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만

8,000원(400만 원×13.2%(소득세 12%+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400만 원×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 4,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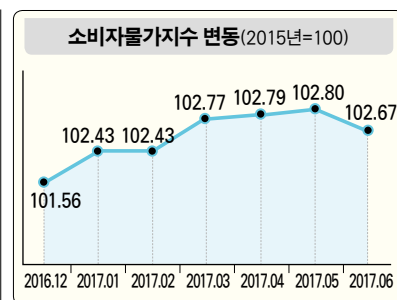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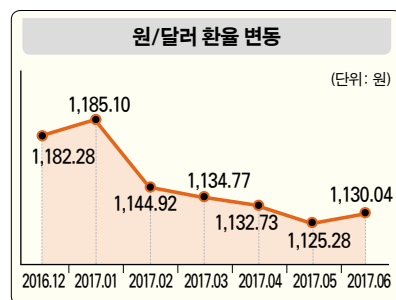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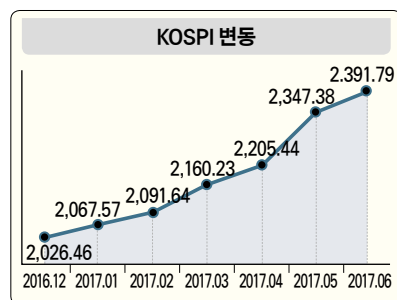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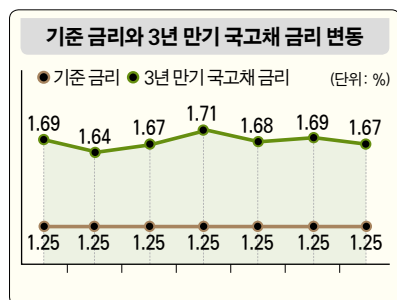
03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금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분기별 납입 한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

우에는 당해 연도에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1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여 13만2,000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 납입 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6.12~2017.06)



· 자료 한국은행(KOSPI-증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